



금융위원회

보도참고자료

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2. 7.(수)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 신장수 (02-2100-2620)
	금융데이터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오형록 (02-2100-2621)

빅데이터 생태계 근간인 **데이터 결합 활성화**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.

- 총 8개 기관에 대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-

□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결과

- '22.12.7일(수) 제22차 금융위원회에서 총 8개 기관*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의결하였습니다.

* BC카드, LG CNS, 삼성SDS, 삼성카드, 신한은행, 신한카드, 쿠콘, 통계청

◇ (데이터전문기관 개요)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(기관)간 **가명정보***를 **결합****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는 기관

*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**추가정보**(암호화 알고리즘 등) **없이**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**안전하게 처리된 정보**(예: (홍길동, 25세, A사 직원) → (AG3EF8, 20대, 직장인))

** 예: 금융회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고,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

□ 추진배경 및 그간의 경과

-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의 익명·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**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**하여 주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습니다.

- 현재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, 금융보안원, 금융결제원, 국세청 등 총 4개입니다.

-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.
- 이에 금융위·금감원은 관련 전문가 TF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원칙(신뢰성·전문성·개방성)과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고, '22.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.
- 이번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지정된 8개 기관은 금감원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,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.

□ 향후 일정

- 금일 예비지정된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	책임자	과 장 신장수 (02-2100-2620)
		담당자	사무관 오형록 (02-2100-2621)
<공동>	금융감독원 빅데이터총괄팀	책임자	실 장 광범준 (02-3145-7160)
		담당자	팀 장 이영기 (02-3145-7180)



■ (사례1) 온라인 사업자 정보 + CB사정보 →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·상품 개발



- 인터넷 포털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CB사의 대출·상환 정보를 결합·분석하여 포털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 및 상품 개발

→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

■ (사례2) 카드사 결제정보 + VAN사 구매품목 정보 →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



- 신용카드 결제 정보와 가맹점 구매품목 정보를 결합하여 상권별로 성별, 연령, 직업군 등에 따른 소비패턴 및 특성을 효과적으로 추론

■ (사례3) 대출정보 + CB사 신용평점정보 →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



-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대출금리 및 잔액 정보와 CB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점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출 및 금리 현황을 분석

→ 금융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수립에 활용